

#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세션 25, 사무엘하 18-20장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하 18-20장 25회입니다. 오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18장부터 19장까지, 8절. 왕의 귀환은 왕국에 혼란을 가져온다. 19장 9절부터 20장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 18, 19, 2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9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장에서 일어날 일은 다윗이 세 번째 할부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 다윗의 도구였던 요압에 의해 전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David의 세 번째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 애도할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에게 오면, 우리는 그가 압살롬의 이름을 다섯 번 부르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여덟 번 부를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섹션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새가 압살롬에게 기다렸다가 온 이스라엘에서 큰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다윗을 압살하라고 권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더 빨리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키토펠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계획이 거부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즉시 다윗을 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18장 1절에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집하고 지금 그의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는 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요압은 3분의 1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셋째 사람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표한 갓 사람 잇대도 새로 도착한 군대의 3분의 1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자 다윗은 2절에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키토벨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 계획은 다윗을 고립시켜 붙잡아 다시 데려오려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남자들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제로 도망쳐야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절반이 죽어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중 10,000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전투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가 앞서 본 계획을 섭리적으로 좌절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왕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 옆에서 있고 그의 부하들은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지휘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올바른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청년 압살롬을 덮어준다는 것, 즉 보호해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읽어보아도 다윗이 압살롬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그를 청년이라고 부른다.

내 생각에는 그는 압살롬이 하려는 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생명과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그의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대해 관대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각 지휘관에게 명령하는 것을 모든 군대가 들었더라.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전쟁터로 진군해 나갑니다. 그들은 단지 도망갈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를 대적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사상자는 엄청났다. 여기에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이스라엘과 싸우거나 만나러 갔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서에서만 사용되었고 사무엘상 4장에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합니다.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군하는 곳.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그날 사상자는 엄청났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날 큰 패배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무엘상 4장의 슬픈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그 사자는 그때 엘리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실패.

여기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이전 선지자서에서 해당 표현이 나타나는 유일한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겪었던 큰 손실을 연상시키는 일이 오늘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우에는 다윗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선택된 왕.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투는 시골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날은 숲이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삼켰다. 나는 그것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혼란에 빠져 길을 잃고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전투에 나갔고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두꺼운 가지 아래로 들어갈 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다고 NIV는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의 머리카락 양에 대해 읽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렸다고 되어 있지만, 머리의 일부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모두 엉키어 노새가 공중에 매달린 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계속 타고 있었다. 그러니 사진을 찍어보세요.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매달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접시에 배달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요압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 봤었 어? 왜 바로 그곳에서 그를 때려눕히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 열 세겔과 용사의 허리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당신이 천 세겔을 달아 내 손에 주어도 내가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듣는 가운데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도 내 귀로 들었나니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보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에는 모호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보호하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청년 압살롬을 보호해 주십시오.

왕은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를 죽여 왕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에 내 등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장군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창 세 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요압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먼저 죽일 권리가 있지만 나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단창 세 개를 가져다가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자 열 명이 압살롬에게 다가와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면 그들은 돌아가서 집단 살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런 식으로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즉, 요압이 그를 쳤으나 다른 사람들도 역시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쓰러뜨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그 동사 조합을 얻었습니다. 나하를 공격 하고 무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장에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사용된 동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다윗이 총애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는 다윗의 범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는 이제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대는 이스라엘 추격을 중단합니다. 요압이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잡아서 수풀 속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흩어졌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매장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는 죄인과 반역자처럼 장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역사의 배경에는 일종의 메아리가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처형된 후, 그가 여리고에서 여호와의 소유를 훔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처형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여호수아 7장 26절). 여호수아 8장 29절에 따르면, 외국 왕인 아이 왕이 나무에 달린 가나안 왕이 나무에 달린 후, 군인들이 그의 지팡이를 나무에 던졌습니다. 시체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바위 더미를 언급하는 유일한 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정확한 언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는 형용사 큰 바위 더미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한 본문간 연결은 압살롬을 아간과 같이 언약 공동체를 욕되게 하고 위태롭게 한 반역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역할과,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한 외국의 적, 아이 왕의 역할에 던지게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그들과 같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8절에서 압살롬이 자기 생애 동안 기둥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는 내용을 괄호 안에 삽입하여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둥에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병인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구절에서 우리는 그에게 세 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연대기로 보면, 그가 언제 이런 일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나요? 아니면 아들이 자신에게 기념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기념비를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물어봐야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압살롬이 실제로 왕조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위해 세운 기념비뿐이다. 그 이상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쿠데타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숨어 있던 정탐꾼들 중 한 명인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군대가 사물을 보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승리입니다.

그분께서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요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의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을 전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나중에 소식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외국인 구스 사람 하나를 골라서, 당신이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은 몸을 굽히고 출발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로 구스 사람의 뒤로 달려가게 하라 나는 가고 싶다. 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요압은 “당신은 왜 가려고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보상을 가져다 줄 소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당신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내가 도망가고 싶다고 합니다.

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압은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달려가서 평지를 지나 구스 사람을 앞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쪽 문과 바깥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한 남자가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혼자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David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또 다른 주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남자가 혼자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파수꾼은 내가 보기에 첫째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처럼 달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가 달릴 때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그곳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넘겨 주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는 군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다윗은 그 와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소년 압살롬은 무사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이 그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아히마아스는 이 시점에서 내가 요압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일종의 편향시킵니다.

요압이 왕의 종과 왕의 종을 보내려고 할 때에 나는 큰 혼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니 왕은 그냥 옆으로 비켜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쿠시테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네 의로움을 건지셨느니라

왕이 이르되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니이까? 그러자 구스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일어나서 왕을 해하려 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아들은 적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청년처럼 되십시오. 그래서 구스 사람은 '너희 대적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avid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왕은 흔들렸다. 왕은 흔들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흔들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사용된 그 단어는 강한 단어입니다.

다른 곳의 지진에 사용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문 너머 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는 것을 봅니다. 가면서 이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당신 대신 죽었더라면. 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데이비드는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기억하십시오. 다말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 후에 울고 또 울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다니는 일이 돌아옵니다.

데이빗은 지금 그녀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정의를  
놓치지 마십시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승리는 군대 전체에게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날에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군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 남자들은 도시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도망칠 때 수치심을 느끼듯이. 그래서 남자들이 도시에  
들어오자 마치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왕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오, 내 아들 압살롬. 오 압살롬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제 그는 압살롬의 이름을 다섯 번, 내 아들의 이름을 여덟 번  
불렀습니다. 요압은 충분했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되 왕이 오늘 왕의 모든 사람을 욕되게  
하였나이다 그분은 방금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딸의 생명과 당신 아내와

첩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살아 있고 우리는 다 죽었더라면 왕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니이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데이빗.

그것은 당신의 군대 전체와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부하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녁때까지 너희와 함께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게 닥친 모든 재난보다 더 중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압의 현명한 조언입니다. 항상 David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요압에게도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일어나서 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David는 이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왕이 문에 앉아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왕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죠. 주님의 징계는 일단 정해지면 피할 수  
없습니다. 3차할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징계는 비록 그분의 구원으로 완화될지라도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말이 겪었던 고통을 여러 면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도중에 그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채,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비극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19장 9절. 8절 끝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으로 도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9:9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환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돌아왔다.

우리 뭐 할까? 그러나 19:9 20장 26절 끝까지 나는 '왕의 귀환은 왕국에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려운 시기이고 갈등과 긴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다시 지지를 던질 것인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회개한 종들이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도 죄의 결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윗을 징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그는 요압과 특히 압살롬을 이전처럼 돌보지 않음으로써 그의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단결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장 9절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두 서로 다투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할지 모릅니다.

왕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과거에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압살롬을 피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로 임명한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로 생활을 하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을 다시 모셔오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런 말을 보냈습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왕의 궁에 이르렀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궁궐로 모셔오는 일에 맨 마지막이 되느냐? 그래서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오래전에 시작되었을 때, 그는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했고, 그래서 그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지지와 힘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내 살과 피라고 부르십니다.

왜 당신이 왕을 다시 모셔오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당신은 나의 동료 부족민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지지를 던지고 나를 다시 데려오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David가 여기서 할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요압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내 살과 피가 아니냐? 그리고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에게는 요압과는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종신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강등시키고 다른 누이의 또 다른 조카인 아마사를 군대 총사령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압과 잘 통하지 않을 것이고, 잘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이 다 한 뜻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연합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는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돌아와서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나가서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가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다윗은 요르단을 건너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올 준비가 되었지만 그렇게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보라, 누가 나타나느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급히 내려왔더라.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 일천 명이 함께 하였고 사울의 집 청지기 시바와 그의 아들 열네 명과 종 스무 명이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도 나타나는 베냐민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있는 요단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집을 인수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여울목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므이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 그는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단을 건너 왕 앞에 엎드 리니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나를 죄 있다고 여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그 일을 마음에서 지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제가 죄를 지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북방 사람 요셉 지파 중에서 처음으로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려고 이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거기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는 시므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에도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이 일로 말미암아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이 문제에 대해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싶어합니다. 다윗이 대답하되 너희 스루야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권리로 간섭해야 합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왕은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이것을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들 에게 그토록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썄요, 내 생각엔 그는 지금이 더 이상의 전투를 벌일 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에 자비를 베풀자.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기에 정치적 동기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베냐민파 요소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임종할 때 다윗은 그다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으니 그가 죽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당신이 그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요압을 잘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여기서 용서의 모범일 뿐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가 시므이에게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고, 나라를 통일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누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19장 24절에 므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앞서 지바가 나타나서 므비보셋이 당신을 배반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만나러 내려옵니다.

그는 왕이 떠나던 날부터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발을 돌보지 않았고, 콧수염을 다듬지 않았고,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애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므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어디 있었어? 그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나는 절름발이이므로 당나귀에 안장을 얹어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하였더니 시바가 나를 배반하였나이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종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모두 내 주 왕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가운데에 당신의 종을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권리로 왕에게 더 이상 상소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전에 나에게 많은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내가 누구에게 지시합니까? 므비보셋은 나에게 매우 진실한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그를 애도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그것은 여기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David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더 말해야 할까요? 이제 그는 이전 판결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지바에게 땅을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나에게 한 가지를 말했고 당신은 나에게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그냥 분할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내가 관심 있는 건 너뿐이야. 그가 모든 것을 갖고 싶다면 가지게 놔두십시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도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왕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로 갈림 에서 내려왔더라. 그리고 바르실래는 늙었습니다. 그는 80세입니다.

그는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다윗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래에게 말합니다. 왜 나와 함께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성스러웠고 나도 당신에게 충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며 내 마지막 날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80세입니다. 나는 즐거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맛이 남지 않네요. 맛을 구분 못해요. 남성 가수와 여성 가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담이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곁에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당신에게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짧은 거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고향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근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37절).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함이라는 하인이 있는데, 그에게 성공적인 경력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은 “김함은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내가 그에게 당신의 뜻대로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 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당신을 위해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데이비드가 건너갑니다.

왕은 바르실래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간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군대와 이스라엘의 절반이 왕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시기합니다.

이전에 그들은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동안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그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기려고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적질하여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갔나이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화가 났습니다. 왕이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것에 대해 화를 내나요?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뭔가를 취한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왕의 지분이 열 몫이 있느니라 하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의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시나이까?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말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느냐? 글썄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욱 강력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돌아오더라도 그의 죄, 즉 요압, 특히 압살롬에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그의 실패는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파들과 북쪽 지파들과 유다들 사이에 연합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국은 다윗의 남은 통치 기간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몇 가지 예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북쪽 왕국은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에게 불평을 가지고 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하고 왕국은 영원히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발전하고 있는 긴장감을 봅니다.

데이비드가 돌아오지만 소란이 일어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David는 그 중 일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우리는 세바라는 말썽꾼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발에게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 또는 사무엘상 25장, 25장에서 사용된 표현. 비슷한 표현, 무가치한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나팔을 불며 외쳐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관련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관련이 없느니라.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 사이의 연합 부족을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2절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들의 왕 곁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권고하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첩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간혀 과부로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알림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왕은 아마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아마사는 새로운 장군입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들을 불러 사흘 안에 나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사가 그 일을 하러 나가지만 다윗이 정한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주인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견고한 성읍을 찾아 우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런 반역을 선동한 세바를 염려하고 그가 압살롬보다 더 나쁜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를 쫓아가야 합니다. 아마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비새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다른 용사들은 아비새의 지휘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세바를 추격하러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 큰 바위에 이르렀고, 마침내 아마사가 그들을 만나러 옵니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띠로 그것을 허리에 묶고 칼집에 단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 단검이 칼집에서 떨어지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들은 사촌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과 우정의 몸짓으로 오른손을 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른손, 즉 주로 사용하는 손을 뺀고 있지만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단검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왼손에 단검을 집어 배에 꽂았고, 아마사의 내장이 땅에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다시 칼에 찔리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 나아가 세바를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살인자인 요압은 여전히 그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사가 자신의 직위를 차지한 것에 분개하여 다윗이 새 장군으로 임명한 사람이 자신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요압의 신복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요압을 좋아하고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니라

그러므로 요압은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를 원하며 마치 군대장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사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몸을 길에서 치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길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모두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세부 사항.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단지 피에 굶주린

암살자이자 살인자인 요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며 북쪽으로 가고 요압이 그를 따라가며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니 요압이 세바가 갔던 성을 에워싸고 포위용 경사로를 건설하여 그 성읍 바깥 요새를 막고 서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쳐부수고 있느니라. 그런데 이 도시의 지혜로운 여인이 소리쳐 듣고, 들어보라고, 요압에게 내가 그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리로 오라고 말하십시오. 그가 그에게로 나아가매 그가 이르되 네가 요압이냐? 그는 간다, 나는 간다.

그녀는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내가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래 전에 사람들이 이 마을인 Avail에서 답변을 얻으라고 말하곤 했고 그게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나라의 평화를 증진해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판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즉 나라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도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걱정합니다.

왜 주님의 유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는 걸까요? 그러자 요압의 대답은 나와는 전혀 다르다. 삼키거나 파괴하는 일은 나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 왕 곧 다윗을 대적하여 이 사람을 넘겨주면 내가 이 도시에서 물러가겠다. 나는 당신의 도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원한다. 나는 세바를 원한다.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성벽에서 당신에게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지혜로운 조언을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가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나팔을 불때 그 부하들이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요압은 세바를 돌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서 Sheba는 처음에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많은 지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동안, 그가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의 자신감 수준에 대해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군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그의 머리를 벽 위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20장의 끝 부분에는 말하자면 다윗의 내각에 관리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글쎄, 누가 돌아왔는지 맞춰봐? 아마사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다시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24절로 다시 내려가 보면 아도니람은 강제 노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데이비드는 분명히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력인 공공 프로젝트나 그와 유사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건 좋지 않아요.

이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겼으며, 그들은 결국 매우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 인력을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에서 이에 대해 읽었는데, 이는 왕이 자신의 동포보다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실제로 위반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러한 억압적인 정책은 솔로몬 사후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아도니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아도람이라고 불리며 다윗의 감독자로서 솔로몬과 르호보암 밑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반역적인 북부 인력을 회수하기 위해 그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의 오두막에 강제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전형적인 왕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남긴 것은 사무엘하 21-24장의 에필로그뿐이며, 다음 수업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21-24절의 내용은 이것과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 중 일부를 통해 다윗의 통치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사무엘하 21장을 다루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하 18-20장 25회입니다. 오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18장부터 19장까지, 8절. 왕의 귀환은 왕국에 혼란을 가져온다. 19장 9절부터 20장까지입니다.